

성령님은 신자들을 충만케 하신다

크리스 식스 목사

사도행전 2:1-21

2023년 7월 2일 설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의 반역을 꺾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예수 안에서 인류를 재결합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국 대표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을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교회를 그의 임재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백성은 다양한 종족 그룹에 예수님과 구원의 길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참으로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행전 2:1-21을 봅시다.

1 오순절이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2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3 그들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자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4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때에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6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저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군중이 놀라 모여들었다.

7 그들이 몹시 놀라 물었다.

“말하는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저마다 모국어로 듣느냐?

9 파르티아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주민,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에서 온 방문객

11(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모두); 크레타인과 아랍인--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12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13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비웃었습니다.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대인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15 이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겨우 아홉시입니다!

16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17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당신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18 남녀를 막론하고 내 종들에게도

그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19 내가 위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아래 땅의 징조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20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피에 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21 그리고 부르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순절은 유월절이 시작된 지 50일 후인 매년 여름에 기념하는 유대인 축제였습니다.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5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하느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패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오순절에 방문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바람과 불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오순절이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는 2,0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사용된 주요 언어였습니다.

이 세 언어 모두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RUACH입니다.

그리스어로는 PNEUMA입니다.

라틴어는 SPIRITUS입니다.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성령과 바람의 관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1-2을 들어보십시오.

1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 땅이 텅 비어 형태가 없었다.

 "흑암이 바다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바람처럼 물 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결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2:7에서 읽습니다.

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령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결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바람에 대해 썼을 때 기상학적 사건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바람이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방으로 달려온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누가가 다음에 쓴 것을 보십시오.

3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바람처럼 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성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38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더니

 그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목전에서

광야에 있는 회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불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항상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하십시오.

3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각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불이 갈라졌습니다.

친구 여러분, 신과 대화하고 싶다면 사원이나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는 아름다운 피부색, 억양, 문화를 가진 소중한 내 친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한 성전으로 건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도시의 한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초기 교회가 지구 전체로 확장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이동식 인간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12절을 함께 보십시오.

4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때에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6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저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군중이 놀라 모여들었다.

7 그들이 몹시 놀라 물었다.

“말하는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저마다 모국어로 듣느냐?

...

12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급한 바람과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및 기타 언어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 번역을 제공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는 매우 유용한 Google 번역과 같은 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Google 번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제자들이 사용했던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초점은 그들이 말한 메시지입니다.

방문객들은 11b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늘 밤 들은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과 능력과 이해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대위임령을 가능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사명이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오순절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워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8:4,5,8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 보십시오.

4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5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8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언어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말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다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지만 새 삶과 새 목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10-11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10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11 너희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때때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불안합니까?

나는 때때로 긴장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내 일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거부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긴장될 때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신자들을 도우셨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로 나타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가 존재하기 전에 불은 열, 요리, 빛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불은 해가 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지식과 이해의 은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나오는 메시야 예수에 관한 이 예언을 들어 보십시오.

“다시는 해가 낮을 비추지 아니하고 달이 너를 비취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와는 영원한 빛이 되시고 네 하나님은 네 영광이 되시리라”

눈먼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9:5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해력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시사하는 바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한 군중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들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2:14-21은 말합니다.

14 그때에 베드로가 열한 제자와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15 이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겨우 아홉시입니다!

16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17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당신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18 남녀를 막론하고 내 종들에게도

그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19 내가 위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아래 땅의 징조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20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피에 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21 그리고 부르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주에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역자 유다에게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시편을 사용하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유다를 마티아스로 대체해야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해 베드로가 오순절을 이해하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나머지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3,000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계속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은 오늘 본 것에 대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2000년 전 120명의 작은 무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3,000명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고국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록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